

# 중국의 전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 중일전쟁을 중심으로 -

권 준 문\*

1. 서 론
2. 전쟁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이론적 접근
3. 중국 지도자의 인식과 전쟁 결정
4. 중국 전략기조의 변화
5. 지역 국제질서의 변화
6. 결 론

## 1. 서 론

중국이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1978년 덩소평이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래 약 30여 년 동안 고도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이해당사국(responsible stakeholder)”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상하이 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 SCO)를 통한 관련국과의 협력 강화,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자원외교

\* 해병대사령부, 해병대위, 군사학석사

강화, 동아시아 및 중앙·서남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한 중국의 부상에 대해 국제사회는 중국을 21세기 G-2라는 강대국으로 인정하면서 국제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과거 역사 속에서 새로운 강대국의 등장은 기존 패권국과의 전쟁을 야기하고 국제질서의 변동을 가져왔다.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유럽에서 강대국이었던 에스파냐, 네덜란드, 영국의 패권다툼 역사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각국은 유럽에서의 지배권을 놓고 경합하였고 많은 전쟁을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부상은 중국으로 하여금 자국 중심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힘의 근간인 군사력의 팽창을 추구하게끔 할 것이고, 이는 향후 국제질서와 동아시아 지역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중국의 부상은 불가피하게 대내외적으로 책임과 공약의 확대를 야기하며, 확대된 책임과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힘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나름대로 다변화되고 있는 새로운 위협과 전쟁양상에 대처하고, 확장된 국가의 사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은 주변국가들과 20차례 이상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을 하였다. 냉전시기 중국의 무력사용 횟수는 미국 다음으로 높으며, 무력 사용의 정도를 의미하는 '호전성' 측면에서도 다른 어느 국가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이는 중국이 국가목표와 이익 달성을 위해서 군사력의 사용을 주저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양상은 중국과 접해있는 동북아 및 동남아 지역내에서의 안보현안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군사적으로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그에 따른 불안정성도 가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중국의 군사력 강화는 대만해협에서의 군사력 균형은 물론, 동중국해에서의 일본,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ASEAN 국가들과의 군사

1) Alastair Iain Johnston, "Chinese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 Behavior 1949~1992: A First Cut at the Data", *China Quarterly*, no. 153, March 1998, pp.14~17.

력 균형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각종 지역현안과 관련하여 분쟁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0년 9월 센카쿠 열도에서 일본 경비정이 중국 어선을 나포한 사건에서 이러한 우려가 여실히 드러났다. 당시 중국은 과거와 달리 어선의 선장을 무조건 석방할 것을 촉구하면서 대일 압박 공세를 높여갔다. 중국이 취한 조치로는 주중 일본대사에 대해 외교적 의례를 무시한 야간 초치(招致) 등을 포함한 중일 정상회담 취소, 중국인의 일본 관광 자제령, 일본에 대한 희토류(稀土類) 수출 금지 등 일본에 대해 엄청난 압박을 가하였고 결국 일본은 비군사적인 분야에서 항복하였다. 그리고 2011년 5월에는 베트남의 석유탐사선 '빙밍 2호'에 연결된 케이블이 중국 순찰함에 의해 절단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갈등의 수준이 군사대결 국면으로까지 치달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국가목표가 확장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역내 분쟁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더 강력해질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의 공동번영과 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지역내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는 중국의 과거 전쟁사를 통해 '당시 중국이 왜 전쟁을 결정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중국의 부상이 "위험적인지 아니면 안정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한 국가의 과거행위는 현재의 정책 및 당면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미래의 행위를 가늠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과거 중국의 전쟁 결정요인을 살펴봄으로써 당시 중국이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가 무엇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일전쟁은 중국의 전쟁 결정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좋은 역사적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양국간의 관계가 매우 긴밀한 시기에서 갈등의 단계를 거쳐 전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1950년에 중국과 베트남 간 외교관계를 맺은 후, 약 30

년간 중국은 200억 달러 이상의 원조와 2만 명의 고문단 및 30만 명의 군인을 파견하여 베트남을 지원하였다. 하지만, 1975년 베트남 통일 이후 중국과 베트남 간 갈등은 심화되어 전쟁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국제체제는 사회주의 이념과 자본주의 이념이 대치하고 있던 냉전시대였다. 그런데 중월전쟁은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이 전쟁 사례 연구를 통해 '당시 중국이 왜 전쟁을 결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요인을 고찰함으로써 중국이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식별된 전쟁 결정요인을 지금의 중국에 접목시켜 봄으로써 향후 중국의 향방을 전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월 전쟁 사례 연구를 통해 중국의 전쟁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현재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의미를 재고찰해보고 이것이 한국의 안보정책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는 II장에서 전쟁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을 고찰하여 본 연구의 분석틀을 도출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중국 정치지도자의 역사적·지정학적 인식의 차원에서 당시 중국의 덩샤오핑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의 대베트남에 대한 중주국으로서의 역사적 인식과 동남아시아에 대한 지정학적 인식이 개전에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논의하고, IV장에서는 중국내 전략기조의 변화 측면에서 덩소평 집권 이후 전쟁수행방식의 변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화교중시정책'이 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분석할 것이다. V장에서는 지역 국제질서의 변화 측면에서 중국과 베트남간의 동맹외해와 베트남과 소련과의 동맹 형성이 중국내 위협인식을 증가시켜 전쟁이 발발하였음을 입증할 것이다. 나아가 결론에서는 중월전쟁에서 식별된 전쟁결정 요인을 현재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접목시켜 봄으로써 한국의 안보에 어떠한 함의를 주는지를 도출하고자 한다.

## 2. 전쟁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이론적 접근

### 1) 전쟁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 3-Image

‘전쟁의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수많은 학자들은 순수한 과학적 자세에서 또는 도덕적 주관이나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해 왔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는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을 망라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전쟁발발에 관한 다양한 설명은 거의 상이한 전쟁의 수만큼 많다.”<sup>2)</sup>라는 주장은 타당성 있게 이해된다. 즉, 전쟁이라는 형태를 광의의 갈등의 개념에 포함시킬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이라는 것은 정형화된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광의의 범주에서 갈등의 하나인 전쟁 현상의 다양성이 전쟁 원인의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쟁 원인의 다양성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지만, 전쟁의 원인에 대해 이론적 고찰을 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케네스 월츠(Kenneth N. Waltz)를 들 수 있다. 월츠는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려는 최우선적 시도로 전쟁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전쟁의 발생빈도를 감소시키고 평화의 기회를 증가시킬 방법이 존재하는가 혹은 과거보다는 미래에 있어서 인류는 보다 많은 평화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전쟁의 원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전쟁과 평화의 상호관계와 상관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통해 세상에서 전쟁이 끊임없이 존재하는 명제에 대한 답을 얻고자 했다.

월츠는 크게 세 가지의 이미지를 통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첫 번째 이미지는 인간 본성에 관한 연구, 두 번째 이미지는 개별국가구조에 관한 연구, 세 번째 이미지는 국제체제에 관한 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2) Robert J. Lieber, Theory and World Politics(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73), p.93.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미지는 전쟁의 원인을 국내적 요인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세 번째는 국제적 요인에 두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이미지(인간 본성에 관한 연구)는 인간의 본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3)</sup> 인간이 겪고 있는 불행은 불가피하게 인간 본성의 산물로 모든 악의 근원은 인간이며, 따라서 바로 인간 자신이야말로 하나의 특수한 악으로 전쟁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나쁜 국가들은 전쟁을 도발하지만 반대로 좋은 국가들은 다른 나라들과 상호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견해는 플라톤, 칸트, 19세기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수정주의적 사회주의자들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두 번째 이미지(개별국가구조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국가들의 내부적 조직은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고 본다.<sup>4)</sup> 전쟁은 대개 개입된 국가들의 내부적 단결을 촉진하고, 내부적 투쟁에 시달리고 있는 국가는 우발적 공격을 기다리는 대신 전쟁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또한 한 국가의 정치체제 성향이 그 사회에 속한 집단의 색깔을 결정하는데 나쁜 정치체제는 인간을 악하게 만들며, 좋은 정치체제는 인간을 선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쟁의 개연성은 정부의 형태에 의해 좌우되게 된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세 번째 이미지(국제체제에 관한 연구)에서는 많은 주권국가 상호간의 조정과 통제를 할 수 있는 체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각 국가는 자신의 국익을 위해 때론 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갈등을 야기한다는 것이다.<sup>5)</sup> 그리고 갈등으로부터 유리한 결과를 쟁취하기 위해 국가는 스스로 고안한 장치에 의존하게 된다. 달리 말하면, 평화보다는 자국이 추구하려는 목적들이 더 높게 평가되는 경우 국가는 그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

3) Kenneth N. Waltz, 『Man, The State and War』 : A Theoretical Analysis』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9), p.16.

4) Kenneth N. Waltz, 『Man, The State and War』, p.81.

5) Kenneth N. Waltz, 『Man, The State and War』, pp.159~160.

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월츠는 앞서 살펴본 각각의 이미지에 대해 단일의 이미지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해낸 처방책들은 부분적인 분석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각각의 이미지는 현상의 부분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성향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불가피하게 다른 이미지들로부터 부족한 부분을 포섭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월츠는 각각의 이미지에 대한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전쟁의 원인을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 이미지가 주변 세계의 객관적 현실에 합리적 반응을 구현하는 것으로, 만약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미지가 고려되지 않으면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세력에 대해서 알 수 없게 된다. 또한 그 반대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정치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세력으로 묘사해 주지만, 세 번째 이미지를 고려하지 않으면 그 세력들의 중요성을 평가할 수 없거나 그 세력들이 초래할 결과들에 대한 예측은 불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2) 분석의 틀

본 연구에서는 중일전쟁 사례 연구를 통한 중국의 전쟁결정 요인을 식별함에 있어 월츠의 세 가지 이미지를 활용하고 이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즉, '개인, 국가, 국제체제'라는 세 가지 요소는 당시 중국이 왜 베트남과 전쟁을 결정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데 좋은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개인적 차원으로는 당시 등소평을 비롯한 중국지도부의 인식, 국가적 차원에서는 중국 내 전략 기조의 변화, 국제적 차원에서는 지역 국제질서의 변화가 전쟁발발에 영향을 미쳤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중국 정치지도자의 인식이다. 이것은 국가 간 관계를 기본적으로 평등한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서구적 개념과 가장 대별되는 요소이다. 중국은 상대국을 어떻게 인식하였고, 이것이 전쟁결정으로부터 종결까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즉, 중국의 덩샤오핑을 비롯한 중국 지

도부의 대베트남에 대한 중주국으로서의 역사적 인식과 동남아시아에 대한 지정학적 인식이 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중국내 전략기조의 변화이다. 등소평 집권 이후 군사와 경제 분야에서 변화가 이루어졌다. 군사전략 측면에서는 '인민전쟁론'에서 '현대 조건하 인민전쟁론'으로 전략 개념의 공세성이 강조됨에 따라 새로운 군사 전략의 개념이 전쟁수행방식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과 기술을 확보를 위해 화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러한 화교중시정책에 반하는 베트남의 탄압정책은 중국이 전쟁을 결정하게 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입증할 것이다.

세 번째는 지역 국제질서의 변화이다. 즉, 중국과 베트남간의 동맹 와해와 베트남과 소련과의 동맹 형성이라는 질서의 변화가 중국내 위협인식의 증가를 초래하여 전쟁을 야기함을 밝히는 것이다. 베트남의 화교에 대한 탄압과 캄보디아 무력침공 등으로 인해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이러한 갈등이 깊어질수록 베트남은 더욱더 친소적인 정책을 추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베트남과 소련간의 군사 및 경제 분야에서의 우호관계 향상이 중국에게 지역 내 위협의 증가로 인식하게 하였으며, 중국은 자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전쟁을 감행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월전쟁을 통해 살펴본 전쟁의 결정요인이 중국의 대주변국에 대한 전략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잣대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앞서 식별된 세 가지 차원에서 향후 중국의 부상을 분석한다면, 중국이 자국의 생존과 안보를 위해 지역 내에서 군사력의 사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인지 혹은 주변국을 주권국가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상호협력 증진을 통한 공생의 선택을 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의 전쟁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향후 중국과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중국이 “중국 위협론”과 “평화발전론” 중 어느 길을 택하고 있는지를 전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3. 중국 지도자의 인식과 전쟁 결정

#### 1) 중국의 대베트남 역사적 인식

베트남은 기원전 111년부터 약 1,000년간 중국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았다.<sup>6)</sup> 당나라가 멸망한 후 베트남은 혼란한 상황에서 응오 꾸옌(Ngo Quyen)을 지도자로 하여 중국의 직접적인 지배로부터 벗어나 939년 독립하였다. 하지만, 베트남은 중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새로운 왕조가 수립되거나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마다 중국 황제의 승인, 즉 책봉을 받았으며, 정례적으로 물자를 중국 황제에게 진상하는 조공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런 양국의 역사적 관계에서 베트남은 중국에서 강력한 왕조가 출현할 때마다 위협을 느꼈고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으며, 반면 중국은 베트남에 대한 종주국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중국이 중월전쟁의 성격을 ‘교훈전쟁’이라 칭한 부분에서 중국의 베트남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단적으로 볼 수 있다.<sup>7)</sup> 중국 정치지도자들은 베트남에 대한 공격을 교훈전쟁이라고 칭했는데, 이러한 발언은 유가의 정치사상에서 볼 수 있는 ‘중원의 국가가 변방의 오랑캐를 훈계 한다’라는 표현과 유사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들마다 국력 차이는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들의 주권은 평등하다고 본다. 하지만, 중월전쟁에서 교훈을 주겠다는 중국의 태도는 뒷사람이 아랫사람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이다. 이처럼 한 국가에게 교훈을 준다는 말은 상대국가와의 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베트남을 자신보다

6) 당시 중국에는 한 무제가 영토확장을 꾀하던 시기였는데, 한은 광둥과 베트남 북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남월을 점령하고 현재의 중국 남부와 베트남 북부에 아홉 개의 군을 설치하고 직접 지배하였다. 중국의 지배는 서기 938년까지 이어졌는데, 이 기간 동안 수많은 저항운동과 진압이 계속되었다. 중국 중원의 왕조가 교체되는 동안 베트남 지역은 그간 몇 개의 명칭을 거쳐 679년 안남도호부로 명명됨으로써 ‘안남’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양승윤, 황규희 외, 『동남아-중국 관계론』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3), p.161.

7) “베트남에 대한 교훈을 보여준다”는 표현은 덩샤오핑이 미국 방문 중에 최초로 언급했다. 『인민일보』 1979년 1월 30일자.

열등하고 지위가 낮은 국가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중국은 대베트남에 대해 역사적으로 자신의 속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베트남은 미국과의 전쟁 이후 중국에 대해 공세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당시 중국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1975년 통일 이후 강력한 군대를 가진 베트남의 정치지도자들은 팽창적이고 도전적인 대외정책을 표명하며, 혁명지도국으로서 베트남의 역할 수행을 강조하게 되었다.<sup>8)</sup> 특히 베트남은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하는 열망과 결실의 시작은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데서 비롯됨을 강조하였다.

이런 베트남의 행동은 중국이 베트남에 대해 가진 역사적인 인식에서 볼 때 '훈계를 하거나 혹은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양국간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평등의 관계가 아닌 상·하 혹은 주·종 관계로 중국지도부는 인식하고 있었고, 이러한 인식하에 베트남이 중국에게 도전하는 세력으로 비취질 때 중국은 이런 베트남의 행태를 그냥 두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중국은 종주국으로서 지속적으로 베트남을 자신의 영향력에 두려고 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대베트남 역사적 인식이 중월전쟁의 원인이 되었다.

## 2) 덩샤오핑 지정학적 인식과 전쟁 결정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였던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미국과 전쟁을 하는 동안 군사 고문단 및 전쟁물자, 식량 등을 지원했다. 하지만, 통일 이후 베트남의 정치지도자들은 '화교에 대한 탄압, 친소련 정책 추구, 캄보디아 침공'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중국지도자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특히 베트남이 1978년 12월 캄보디아를 침공해서 폴 포트(Pol Pot)의 크메르 루즈(Khmer Rouge) 정권을 무너뜨리고 베트남에 우호적인 행 삼린(Heng

8) 정천구, "중월전쟁의 원인과 결과," 『한국과 국제정치』 제2권 2호, 1986, pp.135~136.

samrin) 정권을 세우게 되자<sup>9)</sup>, 중국 정치지도자들은 베트남에 대해 '인도차이나 연방' 나아가서는 '동남아시아 연방'을 결성하여 동남아의 맹주가 되려고 하는 '지역 패권주의자,' '아시아의 쿠바'라고 비난했다.<sup>10)</sup> 그리고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한 직후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한 중국지도부는 1978년 11월과 12월에 베트남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오쩌둥 사망 직후 가장 중요한 회담을 가졌다.

덩샤오핑은 1978년 12월까지도 "현재 평화에 대한 위협은 북쪽으로부터 오고, 세계도처의 불안과 전쟁의 원인이 북쪽에 있으며, 중국에 대한 외국 의 침략이 있다면 그것 또한, 북쪽으로부터 온다"며 소련에 대한 위협을 더 중시했다.<sup>11)</sup> 또한 덩샤오핑은 베트남과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개혁개방 정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그러한 와중에 개전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던 덩샤오핑이 베트남에 대한 공격을 결심한 것은 1979년 1월말 미국을 방문한 이후 미국이 적극적인 반대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sup>12)</sup> 이후 덩샤오핑이 "교훈전쟁"이라는 명목으로 개전을 결정하게 되자, 중국 공산당은 전쟁의 성격을 "베트남에 교훈을 주고, 중국이 소련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고 규정했다.<sup>13)</sup> 1978년 11월부터 1979년 2월 개전까지 중국정치지도자들의 행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9) 1978년 12월 베트남은 수백만 명의 자국민을 학살한 것으로 알려진 캄보디아 폴 포트 정권을 축출한다는 명분하에 약 25만명의 병력을 동원, 캄보디아를 침공했으며 15만 명을 계속 주둔시켜 캄보디아를 장기간 점령하였다.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한 것은 중국과 ASEAN 양대 세력 사이에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인도차이나 3국이 결속해야만 한다는 구상에서 기인되었으며, 캄보디아 주둔 베트남군은 1989년 9월말에 철군했다. 국가안전기획부, 『베트남 현황』 (국가안전기획부, 1997), pp.31~32.

10) 김명섭, 최종호, "1979년 중국-베트남 전쟁의 원인에 관한 재고찰," 『세계지역연구논총』 26집 1호, p.153.

11) 김영문 역, 『모택동 이후의 중국 외교정책』, 대광문화사, 1989, p.103.

12) 벤저민 양, 권기대 역, 『덩샤오핑 평전』, 황금가지, 2007, pp.294~296.

13) 『인민일보』 1979년 1월 30일자.

〈표 1〉 중국의 베트남 참정 과정 연표

| 날 짜                            | 주 요 일 지   |
|--------------------------------|---|
| 1978년 11월 ~<br>1978년 12월       | 중국의 인민해방군 베트남 국경지역으로 이동   |
| 1978년 12월 9일 ~<br>1978년 12월 4일 | 웨이귀청 장군, 덩샤오핑의 아내 차오린 남경 방문.<br>표면상으로는 광서자치구 20주년 기념식 참석이 목적이었으나, 중국지도부의 주된 관심은 베트남 국경지역 갈등과 캄보디아 문제에 있음.                                     |
| 1978년 12월 8일 ~<br>1978년 12월22일 | 3차 당중앙위원회 개최<br>이 회의에서 경제적 문제가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측하나, 주요의제는 베트남과의 전쟁으로서 만약 베트남의 지원으로 캄보디아에서 폴 포트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이 발전하게 될 경우 제한적인 전쟁을 수행하기로 검토함. |
| 1978년 1월 7일                    | 프놈펜이 함락되고, 베트남은 캄보디아에서 철수함<br>중국 정치지도자들은 강력하게 경고성 발언을 시작함.  |
| 1978년 1월 말 ~<br>1978년 2월 초     | 덩샤오핑의 미국 및 일본방문.<br>순방의 주요목적은 베트남과의 전쟁에 대한 상대국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임.<br>덩샤오핑은 미국 방문으로 개전의 자신감 확보함.   |
| 1979년 2월 17일                   | 중국의 베트남 침공 시작   |

출처: Daniel Tretiak, 1979, "China's Vietnam War and Its Consequences," The China Quarterly, No. 80, p. 749; 김명섭, 최종호, "1979년 중국-베트남 전쟁의 원인에 관한 재고찰" 『세계지역연구논총』 26집 1호, p.154에서 재인용.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정치지도자들은 인도차이나에서 새로운 맹주의 등장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베트남을 사전에 저지하고자 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덩샤오핑을 비롯한 중국 정치지도자들의 역사적·지정학적 인식이 중월전쟁 개전의 요소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역사적인 인식에서 중국은 베트남을 자신보다 열등한, 지위가 낮은 국가로 인식하여 베트남의 행동에 대해 교훈을 주고자 전쟁을 감행했고, 지정학적으로 베트남이 친소련 정책과 캄보디아 침공을 통해 인도차이나 지역에서 맹주로서의 자

리매김을 하고자 했던 것이 중국에게 위기의식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즉, 중국은 과거 베트남에 대해 중주국으로서의 역사적 인식과 베트남 통일 정부의 반중국적인 정책에 대한 응징의 댓가로 전쟁을 결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4. 중국 전략기조의 변화

### 1) 군사전략의 변화 : “인민전쟁”에서 “현대 조건하 인민전쟁”으로

중국 성립 초기, 최고 지도자인 모택동의 군사사상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전략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모택동이 제기한 “인민전쟁” 개념은 중국인민해방군 초기 건군 발전의 주요 지도 원칙이 되었다.<sup>14)</sup> “인민전쟁”의 기본 주장은 중국 성립 초기 국력이 쇠약하고 피로한 상태에서 외세의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중국은 광활한 토지와 인구를 반드시 이용하여 장기 지구전을 수행해야만 비로소 중국 군대에 비해 군사장비가 우세한 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15)</sup> 인민전쟁 전략은 1930~1940년대 형성된 것으로 무기보다는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규전을 전개하기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게릴라전을 중시하며,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대규모의 인적·물적 동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sup>16)</sup> 이후에도 중국 군사전략의 기조로서 인민해방군 건설과 운용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모택동 사망 이후 덩소평은 1978년 개최된 제11기 3중 전회 이후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했다. 덩소평은 집권 이후 개혁과 개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시에 농업, 공업, 국방 및 과학기술 등 “4개 분야 현대화”를 제

14) 김홍규, “중국 국방개혁과 군사력 평가,” 『2006 변환기 국제정세와 한국의외교』, 외교안보연구원, 2007, pp.298~300.

15) 황병무, 『신중국 군사론』, 법문사, 1995, pp.114~115.

16) 황병무, 『신중국 군사론』, pp.116~117.

시하여 국가 전체 건설을 추진하면서 군사적으로 모택동의 “인민전쟁” 개념을 새롭게 검토하였다. 등소평이 “인민전쟁” 개념에 대해 수정을 제기한 이유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주요 적인 소련의 군사 과학기술이 이미 중국을 크게 앞서 모택동이 주장한 “인민전쟁”의 전통적인 전략으로는 소련의 무력 침입에 대응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개혁을 추진한 후 중국에는 새로운 공업 중심지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공업 중심지는 중국 경제의 근간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이 반드시 기계화 부대로 발전하여 원거리에서 신속하게 침입해 오는 적을 저지하여 중국의 신흥공업 생산기지가 적의 수중에 넘어가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sup>17)</sup> 이에 따라 새로운 군사전략으로 “현대조건하 인민전쟁”이 제시되었다. 이 전략 개념은 과거 적을 유인하여 격퇴하는 수세적 방어 개념에서 벗어나 적을 국경근처에서 격퇴시키는 “공세적” 개념이 강조되었고, 초기의 전투에 집중하여 조기에 전장의 주도권을 가지는 것을 강화하였다.<sup>18)</sup> 이는 전통적 전쟁수행 방식이었던 ‘지구전’에서 보다 공세성이 강화된 ‘기동전 및 속전속결’ 전략으로의 변화였고, 전장도 과거 중국혁명전쟁의 근거지였던 농촌이 아닌 도시 중심의 작전수행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렇듯 변화된 중국 군사전략의 성격은 과거에 비해 보다 더 공세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적을 기다리고 유인하는 다소 수동적인 전략에서 벗어나 초기에 전장 주도권을 확보하거나 기동전을 통한 속전속결 전략을 추구하는 전략은 중국 지도부와 인민해방군에게 있어 베트남에 대한 교훈 전쟁의 당위성을 한층 배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중국군은 중·월 전쟁 개전 초기 전 정면에 걸친 동시다발적 기습 공격을 계획하였고 군사적 목표도 국경지역 소도시 점령에 주안을 두었다. 개전 이후 중국군은 이러한 전쟁수행개념하에서 랑손을 비롯한 5개 도시를 점령한 후 일방적으로 철수하였다. 이는 제한된 군사력을 사용하여 확전을 방지하고

17) Marks Bules and Abram N. Shulsky, *Patterns in China's use of Force: Evidence from History and Doctrinal Writings*(Santa Monica, CA: RAND, 2000), pp.26~29.

18) Nan Li, “The PLA's Evolving Warfighting Doctrine, Strategy and Tactics, 1985~1995: A Chinese Perspective,” *The China Quarterly*, vol. 146, June 1996.

국경지역에서의 신속한 결전을 통한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고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양상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 2) 경제 성장 정책 추구 : 화교 중요성 대두

중국은 덩샤오핑이 집권한 이후 경제우선 정책을 펼쳤다. 정책 중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해외 화교들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 변화였다. 개혁·개방 정책 이전에 있었던 문화혁명 당시 중국 국민들 중 해외화교와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은 모두 박해를 받았으며 이는 중국의 대외이미지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에 덩샤오핑은 집권 이후 해외 화교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중국의 나쁜 이미지를 개선함으로써 중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화교의 자본 투자를 이끌고자 했고, 화교에 대해 우호적인 방향으로 중국의 정책을 변경했다. 이후 이러한 중국의 국내적 분위기는 결과적으로 중국이 화교를 더욱 더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sup>19)</sup>

이러한 시점에 베트남은 통일 이후 1978년부터 남부 베트남에 대한 '사회주의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쳤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남부 베트남 지역에 대한 통화개혁을 실시했고, 자본가를 제거했으며, 두 번의 걸친 화폐교환으로 남베트남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몰수했다.<sup>20)</sup> 이러한 북부 베트남의 무리한 사회주의 정책은 상업에 종사하고 자본주의 체제에서 생활하던 많은 화교 및 남부 베트남인의 대량 탈출을 야기했다. 베트남의 화교정책에 대해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의 화교들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중국은 베트남내 화교들에 대한 탄압이 중국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였고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로 받아들였다.<sup>21)</sup> 하지만, 이후에도 베트남은 화교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았고, 중국의 화교 중시 정책에 대해 동조하거나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

19) 김옥준, "중국의 대 베트남 징벌 전쟁의 의의: 반소전략의 외교탐색전," 『사회과학논총』 제33집 1호, 2010, p.103.

20) 권기수, "베트남 전쟁 유발요인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제24집, 2002, pp.224~225.

21) 김명섭, 최종호, "1979년 중국-베트남 전쟁의 원인에 관한 재고찰," p.157.

러한 베트남의 태도에 대해 중국은 화교보호라는 결의를 보여주고 체면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베트남에게 교훈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중국내 '군사전략의 성격 및 내용의 변화'와 '경제우선정책' 추진은 중월전쟁의 결정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군사전략 변화에서 공세성 증가는 중국으로 하여금 전쟁을 통해서라도 국가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증가시켰을 것이다.<sup>22)</sup> 그리고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경제발전의 근간인 자본이 필요했는데, 화교들의 경제력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음에 틀림없었다. 따라서 중국은 자국이 추구하는 국가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에게 명확한 경고를 전달하고 향후 사활적 이익 확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 미연에 방지·차단하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 5. 지역 국제질서의 변화

### 1) 중국·베트남 관계 악화

이번 절에서는 양국의 관계를 악화시킨 요인으로 '인도차이나에서의 베트남 지역 패권 유지'와 '화교문제'를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1975년 미국이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철수함에 따라 지역내 힘의 공백이 발생하고 주도권 경쟁의 양상이 초래되었다. 그러한 국제정세속에서 베트남은 지역내 힘의 공백을 이용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

22) 이러한 논지의 이론적 배경은 Allan C. III, Stam, *Win, lose, or draw: Domestic politics and the crucible of war*,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6; Dan Reiter and Allan C. III, Stam, *Democracy, War initiation and victor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 1998; John J. Mearsheimer, *Conventional deterrence*,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Barru R. Posen, 『The Sources of Military Doctrine : France, Britain, and Germany Between the World Wars』 (Cornell University Press, Ithaca 1984)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다. 이러한 베트남의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은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 정권에 대해 지원하였고, 캄보디아를 공격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베트남에게 경고하였다. 하지만 베트남은 캄보디아를 침공하여 1979년 1월 프놈펜을 점령하면서 크메르 루즈 정권을 무너뜨리고 친베트남의 행 삼린 정권을 수립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베트남은 인도차이나에 대한 사회주의를 확산시키고 지역내 전통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인도차이나에 대한 주도권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넘어 가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처럼 베트남이 지역내 강국으로 부상하고자 하는 의지는 중국에게 위협의 증가로 비춰졌고, 무엇보다도 중국은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베트남이 친중성향의 캄보디아를 침공한 것은 중국으로 하여금 베트남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두 번째로 양국은 화교문제로 인해 관계가 악화되었다. 1978년 베트남이 중소기업을 국유화하면서 수십만의 베트남 화교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 1978년 봄 이후 중국에 들어온 베트남 화교 피난민 수는 처음에는 매일 수십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매일 수백명, 수천명에 달하게 되어 몇 개월 만에 17만명에 이르는 화교들이 중국으로 피신하게 되어 중국과 베트남간의 화교문제는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었다.<sup>23)</sup>

당시 중국은 경제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화교중시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중국지도부는 개혁·개방 정책을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자본과 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했고, 특히 해외화교들의 자본을 흡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중국은 푸젠, 광둥 지역의 귀국화교와 해외화교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장려하고 있었다.<sup>24)</sup>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베트남에서 탄압받고 있던 화교들에 대해 보호 조

23) 『동아일보』, 1979. 2. 19.

24) Wang Gungwu, "External China as a New Policy Area", *Foreign Affairs*, Vol 58, No. 1(Spring, 1985), pp.28~43.

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78년 6월 중국은 대량 탈출하는 화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두 척의 선박을 베트남에 파견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베트남은 중국이 화교 철수 이전에 먼저 관련문제에 관한 협상을 진행한 후 화교들의 승선을 허가하겠다고 주장하였고, 중국은 이러한 베트남의 주장에 대해 무조건 화교들을 중국으로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였다.<sup>25)</sup> 양국의 갈등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는 와중에 중국은 '베트남이 화교를 추방하는 것은 베트남 정부가 고의로 중·베트남 관계를 파괴하고자 하는 엄중한 반중행위'라고 말하며, 베트남의 화교에 대한 탄압에 대해 그 모든 결과는 베트남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베트남에 대한 원조를 철회하고 이 자금과 자원들을 귀국화교의 정착과 생활안정에 지원할 것을 결정하였다'고 언급하며,<sup>26)</sup> 베트남에 대한 원조 중단을 선언하였다.

이후 1978년 6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양국은 하노이에서 17차례의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중국은 박해받고 있는 화교들의 명단을 제시하면서 대상자를 중국으로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였지만, 이에 대해 베트남은 자국에서 박해받고 있는 화교들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명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회담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이후 중국은 다시 한번 양국간의 회담을 대사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시켜 화교문제에 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의하여 8차례의 회담을 가졌으나, 아무런 진전없이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중단되었다.

## 2) 베트남 · 소련의 우호협력 강화

호치민 시기 베트남의 대외정책은 “두 공산 강대국 사이에서 어느 쪽에도 편중되지 않은채 전쟁을 계속했으며, 결국 승리로 귀결 지을 수 있었다”

25) Hemen Ray, *China's Vietnam War* (New Delhi: Radiant Publish, 1983), pp.79~80.

26) 김옥준, “중국의 대 베트남 정벌 전쟁의 의의: 반소전략의 외교탐색전,” p.102.

고 평가할 수 있다.<sup>27)</sup> 왜냐하면 호치민은 중국과 소련 양국 모두와 인맥을 맺고 있었으며, 어느 한 쪽에 기울어지는 것을 피하면서 등거리 노선을 취했기 때문이다. 또한, 외교적으로 친중국적 혹은 친소련적 양쪽의 정책에 대해 조정과 균형을 취할 수 있는 권위와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1975년 통일 이후 베트남에는 '친소련파'가 득세하게 된다.<sup>28)</sup> 1969년부터 1975년까지 베트남은 친소파와 친중파의 양개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며 미국과 전쟁을 수행했지만, 1976년 4차 당대회를 통해 친중파가 급격하게 몰락하게 된다. 마오쩌둥의 사망 이후 중국 내에서 만연한 마오쩌둥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개혁개방 정책으로의 전환은 마오쩌둥의 노선을 지지한 베트남내의 친중세력의 입지를 약화시켰고, 상대적으로 친소파가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sup>29)</sup> 또한, 중국과 소련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국이 미국, 일본 등 자본주의 국가들과 관계개선을 하게 되자 베트남은 1978년 이후 소련에 보다 의존적인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베트남은 이전의 중국과 소련 사이의 외교적 균형을 잃은채 친소적인 외교정책을 펼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소련은 미국이 인도차이나에서 철수한 후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세력균형이 무너진 기회를 이용하여 힘의 공백을 메우려 했다. 1970년대 소련의 대아시아 정책 목표는 베트남 및 북한과의 관계 강화와 일본과의 시베리아 개발협력을 통한 주변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미·일 동맹 약화와 중·일의 과도한 접근을 차단하여 반대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중국을 포위하여 소련과 타협하게 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세력 확대 저지를 통한 패권적인 지위를 확보·유지하는 것이었다.<sup>30)</sup>

27) 노영순 역, 『20세기 동남아시아의 역사』, 심산, 2005, pp.470~471.

28) 김명섭, 최종호, "1979년 중국-베트남 전쟁의 원인에 관한 재고찰," p.151.

29) 1976년 12월 제4차 당대회를 통해 경험 많은 원로들이 퇴진하고, 젊은 인맥이 충원된 것이 결과적으로 "중소에 대한 등거리 노선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고도의 정치적 숙련을 요하는 정책결정과정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정천구, "중공 베트남 전쟁의 원인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81, pp.92~95.

30) 김옥준, "중국의 대 베트남 정벌 전쟁의 의의: 반소전략의 외교탐색전," p.103.

소련은 아시아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베트남에 대해 전략적 접근을 시작하였다. 1978년 6월 마다카스카르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였을 때, 브레즈네프는 '베트남이 외부로부터 불합리한 압박이나 공격을 받을 시 우리는 베트남에 대해 확실한 지지를 보낼 것이며,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항상 베트남과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양국간의 전략적 관계를 과시하였다.<sup>31)</sup> 1978년 9월 소련은 수송기 15~20대 분량의 군수품 제공을 시작으로 베트남이 중국을 포함한 주변 적대국에 대항하기 위한 26억불 상당의 무기를 원조하였다. 원조 내용 중에는 캄란 만과 라오스 동북부에 미사일기지 건설을 위한 자금도 포함되어 있었다. 미사일 기지는 베트남이 중국에 대해 중거리 미사일 공격 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sup>32)</sup> 그리고 소련은 군사 분야에서 베트남의 캄란 만과 하이퐁항을 소련의 해군기지로 사용하고자 했다.

더욱이 양국 외교정책의 공통분모가 중국을 사이에 두고 더욱 더 공고한 협력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특히 중국이 미국, 일본 등 자본주의 국가들과 관계개선을 하게 되자 베트남은 더욱 더 소련에 의존적인 정책으로 전환하게 된다. 베트남은 1978년 6월에는 소련과 동유럽 국가의 경제협력체인 코메콘(COMECON)에 가입했고, 1978년 11월에는 소련과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했다.<sup>33)</sup> 이 우호협력조약은 과학기술, 문화, 교육 등 각 영역에서의 상호교류와 협력 및 사회주의 제도의 고수와 발전을 명시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만일 한 국가가 공격의 목표 혹은 공격위협이 목표가 될 경우 쌍방은 즉시 상호 협의를 통해 이러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이에 대응하는 유효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한다'라는 안보협력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양국간의 전략적 협력 강화는 중국에게 위협으로 인식되었고, 중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왜냐하면 중국지도부

31) 김옥준, "중국의 대 베트남 정벌 전쟁의 의의: 반소전략의 외교탐색전," p.103에서 재인용.

32) News Week, 1978. 9. 18.

33) 정천구, "중공 베트남 전쟁의 원인 분석," pp.217~223.

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통일 베트남이 소련과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친소노선’을 선언한 것은 중국을 겨냥하고 아시아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sup>34)</sup> 베트남이 공산화된 이후 소·베트남 양국의 급속한 관계형성은 중국으로 하여금 소련이 베트남과 연대하여 중국을 포위하려 한다고 인식하기에 충분하였다. 따라서 동남아시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중국으로서는 베트남의 친소정책을 좌시할 수 없었다. 결국, 소련이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위협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중국으로서는 자국의 안보를 위해 베트남의 외교 정책을 전쟁을 통해서라도 바꾸고자 했던 것이다.<sup>35)</sup>

## 6. 결 론

지금까지 중월전쟁의 사례 연구를 통해 중국의 전쟁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았다. 전쟁 결정요인으로 중국 지도부의 인식, 전략기조의 변화, 지역 국제질서의 변화가 중국에게 전쟁을 야기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대주변국에 대한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차원에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서 살펴본 세 가지의 전쟁결정 요인을 현재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게 접목시켜 한국의 안보에 주는 함의를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지도부가 자국의 핵심이익(core interest)에 대해 단호한 입장과 비타협적인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역내 불안정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지도부는 지난 30여 년 동안 국가이익 확보함은 물론 지위향상과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기회

34) 등소평은 소련과 베트남의 이 조약은 중국뿐만 아니라 더 큰 범위를 겨냥하는 것이며, 아시아를 위협하는 것이라 비난했다. 또한, 이 조약은 대패권주의(소련)와 소패권주의(베트남)가 정치군사적으로 상호협력이 절박한 시기에 나온 것이라 평가했다.

35) 정천구, “중공 베트남 전쟁의 원인 분석,” p.142.

가 있을 때마다 그들 자신은 강대국을 지향하지 않으며, 패권 추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중국의 국력이 커짐에 따라 중국은 자국의 '핵심이익'을 확대시키고 핵심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0년 7월에 개최된 제17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에서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의 남중국해에 관한 발언<sup>36)</sup>과 2011년 6월 5일 량광례(梁光烈) 국방부장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0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상그릴라대화)에서의 발언<sup>37)</sup>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은 자국의 핵심이익(Core interest)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 군사력의 확대는 중국지도부가 주변국들과 협상 없이 자국의 핵심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자국의 군사력 현대화를 대외에 과시함으로써 영유권 분쟁, 미국의 역내 군사력 강화, 대만문제 등과 관련하여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따라서 주권수호나 영토보전과 같은 '핵심이익'에 대한 단호한 중국지도부의 인식은 자칫 군사적으로 주변국들과의 갈등 및 대립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국의 군사변혁 추구는 불가피하게 역내국가들과의 군비경쟁을 가속화할 것이다. 중국은 변화된 국제전략 환경에서 '적극방어' 전략사상을 실행하기 위해 1993년 '침단기술 조건하 전략'을 채택한 이후 10여 년간 합동·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였고, 2004년에 이르러 '국방건설 전분야에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정보화 달성'을 당면과제로 제시하여, 현재까지 '정보화전에서의 승리'라는 전략목표하에 중국특색의 군사변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수호해야 할 국가이익의 범위가 확대되고 새로운 전쟁양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쟁수행능력을 구비하는 데 여념이 없다.

36) 2010년 7월에 개최된 제17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에서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은 상당한 시간동안 남중국해가 대만, 티벳, 신장성 등과 함께 '자국의 주권 및 영토보전과 관련된 핵심 이익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0. 7. 24.

37) 중국의 량광례(梁光烈) 국방부장은 2011년 6월 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0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상그릴라대화)에서 국제안보협력을 위해 4대 원칙 중 첫 번째로 '상호존중과 평등 대우, 상대국 핵심이익과 주요 관심사에 대한 주의'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발언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핵심이익(Core interest)'을 제차 강조함으로써 남중국해에 대한 해양관할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였다. 조선일보, 2011. 6. 7.

특히, 해군 및 공군력이 현대화되고 증강되면서 과거 연안에 머무르던 활동범위를 근해로까지 확대해나가고 있다. 해군은 2050년까지 대양해군을 건설한다는 목표로 '원해작전 능력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축함과 호위함의 대공·대잠 능력뿐만 아니라 각종 전투체계 성능 및 전자전에 대비한 각종 센서의 개선, 그리고 첨단기술인 스텔스 기술까지 적용하여 현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로부터 구입한 바라크(Varyag : 6만 7,500톤) 개조를 포함해서 항공모함 건조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항모 진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해양력을 원해로 확대할 계획임을 의미하며 중국이 추구하는 '적극적 근해방어'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공군력에 있어서는 정보화 작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토방공형에서 공방겸비형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고, 정찰 및 조기 경보, 공중타격, 전력 투사 능력을 향상하고 있으며, 지휘·통제·통신의 기초 네트워크 개선을 통해 현대화된 전략공군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3세대급 전투기인 J-10을 자체생산하고 공중급유기를 도입하여 원거리 타격능력을 향상 시켰다. 결과적으로 변화된 군사전략하에서 부상한 군사력은 주변국들의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군비경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며, 지역 내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을 높여 지역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셋째, 북한급변사태 혹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 등 지역내 국제질서의 변화로 인해 발생가능한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변화는 중국으로 하여금 지정학적·전략적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중국 본토를 침공하는 통로였다. 19세기 이후 제정러시아, 일본, 미국은 모두 한반도를 통해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였다.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은 이러한 안보적 위협에 대해 중국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북한급변사태 및 한국주도의 통일은 중국에게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완충지대가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중국은 통일 이후 친미적 성향의 한반도를 이웃에 둠으로써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을 모면

하기 위해 지역내 국제질서 변화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주변국들과의 관계는 지난 30년 동안 지역내 긴장완화, 다자간 경제·안보 협력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와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이 한반도에 안보위협이 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어쩌면 그러한 가정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의 위협 가능성은 “잠재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왜냐하면 중국은 국력이 부상함에 따라 지역현안에 관련하여 분쟁을 미루는 전략에서 핵심이익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쟁취하려는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부상이 동북아 및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대비해 나가야 한다.

(원고투고일 : 2011. 12. 1, 심사수정일 : 2012. 2. 10, 게재확정일 : 2012. 2. 21)

주제어 : 중국 정치지도자, 정치지도자 인식, 중국의 안보전략, 전략기조 변화, 중국의 핵심이익, 국제질서 변화, 중국·베트남 관계, 중월전쟁, 전쟁 결정요인, 중국 위협론, 평화발전론

&lt;ABSTRACT&gt;

## A Study on the China's War Decision Factors - Focusing on the China-Vietnam War -

Kwon, Jun-moon

Throughout history, wars between emerging powerful nations and the original ones have brought a change in the international order. Struggles among European powers such as Espana, Netherlands, England between 16th and 18th centuries supports it well. Each countries had competed for power and fought many wars. In such perspective, China's rise in power will be the reason for China to maintain its own order through expanding military, which is the symbol for power, and such action will further affect the international order and East Asia region in negative ways. Thus, strong power is needed in order to assign China the bigger responsibility and commitment. Moreover, China is expanding its military to prepare for diversified new threats and possible war and to profit for its survival. Such future China will more likely to become a major threat to its neighbor countries rather than a contribution to common prosperity.

The research has utilized Waltz's three images to analyze China's war decision in case of the China-Vietnam War. In other words, three elements called individual, nation, international structure explain why China declared war upon Vietnam at the time. There are three reasons which caused the war: awareness of China's leaders like *Deung Shao Ping* in an individual scale, change in China's strategy in a national scale, and change in international order

First reason is the awareness of China's political leaders. This is different from the Western concept of fair among countries. Analyze how china recognized other countries and how this caused China to declare

war. That is to say China's political leaders', including *Deong Shao Ping*, historical awareness of colonized Vietnam and geopolitical awareness of East Asia greatly affected China's action for war.

Second reason is the change in China's strategy. After *Deon Shao Ping's* rein, there was a change in terms of its military and economy. China's military, changed from *Communists warfare strategy* to *modern Communist warfare strategy*, stressed more on offense, so the new concept of war strategy affected the war execution procedure. And in order to secure assets and skills needed for its economic growth, China realized the importance of Chinese resident abroad. Vietnam's oppression policy, which was against the Chinese policy, convinced China for its war.

Third reason is the change in local international order. In other words, Vietnam's action in breaking away from China and in allying with Soviet Union heightened the tension for war. Vietnam's oppression on Chinese residents and Cambodian's military invasion worsen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Vietnam. As the complications occurred, Vietnam moved toward more Soviet-friendly policy. As a result, China decided to wage war when it understood Vietnam-Soviet relations as a threat in China's security.

In conclusion, analyzing China's decision factors before the China-Vietnam War can be used to understand strategy of powerful countries around China. If China's three factors, as mentioned above, are used to analyze China's future rise, whether China uses its military power for the sake of its survival and security.

Once again, through out the research on China's war determination factors, we can prospect that which theory remains in the relation with adjacent nations among *China threat theory* and *peace development theory*.

Key Words : China's Political Leader, China's Strategy, Withdrawal, Local International Order, Vietnam, Security, Prospect